

나주영산강축제, 콘텐츠·볼거리 ‘업그레이드’

시, 10월 7~11일 영산강정원 일원…감독 선임·포스터 제작
나주목사 행차 신설·가족 체험 확대…교통 등 관람환경 개선

지난해 52만명 방문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나주영산강축제가 한층 풍성해진 콘텐츠와 새로운 볼거리, 편리한 관람 환경으로 돌아온다. 역사와 생태, 정원과 문화,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나주시는 오는 10월 개최를 목표로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의 황지영 예술감독 선임과 공식 포스터 제작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축제는 ‘Hello 나주 페스티벌, 다시 뜨겁게!’

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낸 축제의 열기와 감동을 이어가면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영산강의 역사와 생태, 정원문화, 지역의 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주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식 포스터에는 한국미술협회 소속 나주 출신 서예가인 알곡 이순재 선생의 글씨를 활용한 지역의 정체성과 축제의 상징성을 담아냈다. 황지영 예술감독은 축제의 전체 기획과 공간 연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영산강이 품은 역사와 자연, 나주의 문화자원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주목사 행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조선시대 호남의 행정, 문화 중심지였던 나주목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아우러지는 대표 역사 문화 콘텐츠로 선보일 계획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한층 확대하며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키자니아 직업 체험은 운영 규모와 체험 분야를 넓히고 보드게임 체험 공간도 확대해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축제 공간을 조성한다. 나주의 대표 문화자원인 천연염색 콘텐츠도 강화한다. 천연염색 작품 전시와 체험, 문화상품을 연계한 특화 공간을 조성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주만의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천연염색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복소비쿠폰도 확대 운

영해 축제장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상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와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한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함께 늘려갈 계획이다. 관람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교통 대책도 대폭 보완에 나선다. 지난해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 혼잡과 셔틀버스 운행 지연 등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축제장 진입로 신설과 기존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확보한 진입로를 활용한 셔틀버스 전용도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운영팀 나주시장은 “지난해 영산강축제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열정과 참여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Hello 나주 페스티벌, 다시 뜨겁게!’라는 슬로건처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기억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완도군-한일고속, 관광 활성화·상생 협력 ‘맞손’

완도~제주 여객선 이용객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완도군이 완도와 제주도를 잇는 여객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한일고속과 관광 활성화와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신 완도군수와 박신희 완도군행복재단 이사장, 최지환 ㈜한일고속 대표, 김강호 완도영양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완도 관광 활성화와 취약계층 아동 후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은 연간 50만명이 이용하는 ㈜한일고속의 제주 운항 여객선 인프라를 완도의 해양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드림스타트 아동, 가족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한일고속 누리집과 여객선 내 완도 관광자원 홍보, 완도~제주 간 승선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 제공 등 관광객 유치와 관광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한일고속과 관광 활성화와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완도군청

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지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해양치유센터(30%), 보길 윤선도 유적지(50%), 해양생태전시관(50%), 장보고 기념관(50%), 완도타워(50%), 모노레일(25%), 정라인(15%), 청해포구 촬영장(20%) 등이며, 승선권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관광지 운영 상황에 따라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변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후원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후원 규모는 총 2000만원 내외로 장학

금 지원과 문화 체험 등에 사용된다. 장학금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지정 기부 방식으로 총 1000만원이 지원되며, 문화 체험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 체험은 한일고속에서 약 1000만 원을 지원, 숙박·체험 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신 군수는 “제주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의 완도 방문이 늘어나 체류형 관광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일고속의 후원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지환 ㈜한일고속 대표는 “한일고속이 완도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역할을 넘어 완도군과의 협력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아울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해남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청년 20여명으로 구성된 ‘해남형 지속가능발전 청년 실천 프로젝트형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해남군청

‘지속가능 해남의 미래’ 청년이 만든다 군, ‘청년 실천 프로젝트형 서포터즈’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해남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청년 20여명으로 구성된 ‘해남형 지속가능발전 청년 실천 프로젝트형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는 해남군청년세마을연대와 해남청년연합회 2개팀으로 각 10명씩 참여하고 있다. 해남형 지속가능발전 청년 실천 프로젝트형 서포터즈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하며, 이를 콘텐츠로 제작해 군민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해남군청년세마을연대는 ‘생명존중 마음 잇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마을 곳곳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소문을 나누는 활동을 펼친다. 해남청

년연합회는 ‘관내 지속관광 루트 개척 프로젝트’를 계획해 해남의 숨은 명소와 여행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청년 서포터즈는 “우리가 살아갈 해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더 푸르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청년만의 열정과 에너지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참여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이다”며 “이번에 위촉된 청년 서포터즈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광,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사업 초석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조례 정비 등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영광군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영광형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사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부군수 직무대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형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펀드는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주민이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일정 주기로 배당받는 구조다. 강원 태백 가덕산 풍

력, 경북 영덕 호지마을 풍력 등에서 이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사례가 운영되며 지역 소득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적정 수익률 및 펀드 규모 △추진 로드맵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됐으며, 주민참여 유형별 적용 구조를 구체화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해 군민이 직접

혜택을 제감하도록 추진한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연내 조례 정비와 시범사업 대상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의 햇빛과 바람을 활용하는 발전사업에 군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발전사업의 이익이 사업자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